

대학생의 약물 사용 실태 · 지식 및 태도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

한경순* · 문선영** · 박현옥*** · 박은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약물은 의학에서 약물 본래의 목적을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약물남용으로 인한 자신 및 사회 파괴의 의미인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정희숙, 1991)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약물을 사용하여 왔다. 또한 약물사용은 연령, 성별, 교육,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김혜균, 1998).

약물남용 문제는 파생된 물질을 쾌락 혹은 정당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19세기경부터 의학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후 의학계 내에서도 음주, 아편, 코카인의 중독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였으며 약물절제에 대한 사회운동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약물 남용은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주며, 개인에게 심각

한 물질적 손해, 신체적 질병 및 정신적 공황상태를 유발하기도 한다(민성길, 1998).

그러므로 증가추세에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가 약물남용 상태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며(Chinlund, 1974), 특히 비행청소년에서의 약물남용은 일반청소년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높아서(변상호, 이태복, 이년수, 1978; Shearn, 1972), 이러한 약물남용이 청소년들의 비행에 촉매적 역할을 한다. 약물의 남용 또는 과용이 성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남용도 예외일 수가 없고, 이로 인한 부작용 특히 간상해에 관한 문제가 의료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어떤 항생제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독성 작용인 과민반응에 의해서 간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유방현, 1981). 따라서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오늘날 약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약물사용은 음성적으로 더욱 성행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 신홍대학 간호과 조교수
** 신홍대학 간호과 조교수
*** 신홍대학 간호과 시간강사
****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시간강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청소년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주로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주로 약물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시도되어졌고(박충신, 은종영, 정미영, 1999) 또한 약물남용이 청소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김귀분, 이경호, 2000)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학생들에 약물사용 양상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전문대 학생의 약물사용에 관한 연구(이명숙, 1989)가 보고되었으나 대학생들의 약물복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보고자 하는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롭게 약물을 접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지식 및 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건강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태도를 개선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약물 사용에 대한 실태와 약물 사용 시의 지식 및 태도를 분석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약물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 2) 대학생의 약물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약물에 대한 지식

대학생으로 알아야 하는 약물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일반사용수칙과 보관법, 부작용 및 항생제, 임신 중에 약물복용, 비타민·중독성 약물의 유해성 및 약의 종류에 관한 5영역을 측정하여 각 문항을 조사 분석한 것을 의미한다.

2) 약물에 대한 태도

대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약물사용 시 주의점 및 흡연·마약 사용에 대한 태도에 관한 2영역으로 측정하여 각 문항을 조사 분석한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WHO에 의하면, 약이란 '단체에 투여되어 그 기능들의 일부를 변화시키게 되는 물질'이다. 넓은 의미로 약은 음식을 제외한 모든 화합물을 일컫는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근본적으로 질병을 고치거나 각종 증상을 완화하거나 또는 예방하는 작용을 하는 화합물을 말한다. 약물남용이란 의료행위의 규정에 맞지 않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과용하는 것이며, 약물 의존이란 약물사용의 증지로 인한 불쾌감을 피하고 정신적인 약물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을 지속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사용하며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약을 얻고자하는 강박성이 부수되는 정신적 및 신체적 중독상태를 말한다(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 1993). 많은 사람이 약을 사용하고, 약을 사용하는 이유도 많고 다양하다. 그러나, 이 약물을 사용할 때 약물의 사용, 오용, 남용과 다수약물 사용, 약물의 상호작용 및 약의 일반매약(OTC Over-The-Counter)과 대중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약의 선전, 광고의 문제점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의사가 처방하는 여러 가지 약물과 처방 없이 약국에서 시판되는 약물 또한 남용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흔히 남용문제를 일으키는 약물에는 마취제, 비마약성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뇨제, 근육이완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기타 비처방성 시판 약물 그리고 근육강화제 또는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약 약물에 한해서만 물질 관련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될 때도 남용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휘발성 물질을 중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

우, 이들은 흡입제로 분류된다(민성길, 1998).

또한 비행 청소년의 약물사용동기는 '기분이 편안해지기 위해' 또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호기심' 및 '남성다워지기 위해' 등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백명기, 민병근, 1981). 한국 청소년의 약물 남용과 비행행위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였으며, 소극적인 동기로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41.8%, 잠을 안 자기 위해 19.7% 등이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립적인 동기인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16.6%, 약에 대한 부작용을 모르고 3.6% 등의 이유였고, 호기심 4.2%, 강한 힘을 얻기 위해 3.0% 등의 적극적 이유가 전체의 12%였다. 이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호기심이나 강한 힘을 얻기 위한 이유보다는 괴로움과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김성희, 1988).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경우를 볼 때, 이명숙(1989)의 전문대 학생의 약물사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약품구입이 의사의 처방없이 되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었고 광고를 통한 지식으로 부적당한 약의 선택과 사용방법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김소야자 외, 1993)에서는 약물사용동기에 있어서 잠을 안 자기 위해서가 49.4%, 호기심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 등의 모험추구형이 27.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잠을 안 자기 위해서 각성제를 사용한다는 경우가 83.9%로 높아 약물사용과 학생의 학교성적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약물사용 후 느낌은 무감각 34.3%, 잠이 안 오고 의식이 흐려짐 22.8%로 나타났다(김소야자 등, 1993). 그리고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경험(김귀분, 이경호, 2000)에서 그 의미는 쾌락추구, 소속감추구, 현실도피, 심약함, 심리적 부적응, 신체적

이상반응, 심리적 혼돈, 자기의식회복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미뤄볼 때, 대학생들의 약물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신체적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함으로 예방 및 치료에 보다 다양한 자료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약물 남용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약물 사용 시 지식 및 태도를 보는 기초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소재 한 일부 대학의 남자 대학생 300명, 여자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식당, 휴게실, 도서관, 강의실 등을 통해 편의 표집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이다. 전체 응답자 600명 중 설문지 반환을 하지 않았던 61명을 제외한 539명(89.8%)과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항목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던 49명을 제외한 490(81.7%)명이 최종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 남학생은 241명(80.3%), 여학생은 249명(83%)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199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달간 수집하였으며,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준비한 설문지를 조사자에게 대리 교육을 한 뒤 조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배부한 후, 간략하게 설명 뒤에 기입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3. 연구 도구

선행 자료 및 문헌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사전 검사 후 사용하였으며, 설문 내용으로는 일반적 특성, 가족관계, 학교 관계, 건강 및 기호 관계, 친교 관계, 약물에 대한 태도 및 약물에 대한 지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약물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질문은 권인숙(1991)이 52항으로 작성한 설문지(Cronbach's $\alpha=.8328$)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설문지는 약물에 대한 일반적 사용 수칙과 보관법 12문항, 부작용 및 항생제 7문항, 임신중의 약물 복용 4문항, 비타민제·중독성 약물의 유해성 12문항과 약의 종류 12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하였고,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565$ 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약물 지식을 평균점수가 2점 이하이면 약물 지식이 낮다, 2-4점이면 보통이다, 4점 이상이면 약물 지식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약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은 권인숙(1991)이 18문항으로 작성한 설문지(Cronbach's $\alpha=.6600$)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약물 사용시의 태도와 약물 광고에 대하여 8문항 및 주변의 흡연 및 마약 사용에 대한 태도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하였고,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426$ 로 나타났다. 약물 사용에 대한 태도 역시 평균점수 2점 이하이면 신중하지 않다, 2-4점이면 보통이, 4점 이상이면 약물 사용 시 태도가 신중하다로 하였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Program을 이용

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약물에 대한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약물 사용과 관련된 지식 및 태도는 ANOVA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약물 사용에 대한 실태와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 교육시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약물 사용과 관련된 지식과 태도

1) 일반적 특성과 지식 및 태도와의 관계

일반적 특성과 약물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약물 지식의 평균 점수 차이를 본 결과 계열, 학년, 성별, 연령, 종교, 용돈, 학교 생활 만족도, 건강 상태, 자신의 체형, 부모와의 관계 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과 약물 사용에 대한 태도에서는 계열($F=3.049$, $p<.010$), 학교 생활 만족도($F=6.167$, $p<.002$), 자신의 체형($F=8.092$, $p<.000$), 부모와의 관계($F=3.728$, $p<.005$)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계열에서 인문 계열(2.50)이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예.체능 계열(2.35), 공업계열(2.31), 간호 계열(2.26), 보건 계열(2.25), 가정 계열(2.04) 순으로 가정 계열이 가장 낮았다. 학교 생활 만족도는 만족하다(2.18)가 보통(2.27)이나 불만족하다(2.41) 보다 약물 태도의 평균 점수가 낮았으며, 자신의 체형에서는 뚱뚱하다(2.24)와 보통(2.24)인 체형에 비해 마른 체형(2.45)이 약물 태도의 평균 점수가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매우 좋다(2.13)가 매우 나쁘다(2.33)보다 약물 태도의

<표 1> 일반적 특성과 약물의 지식 및 태도

(N=490)

항목	세부항목	지식		F	유의도	태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계열	보건	3.10±12.35		1.073	.374	2.25±5.36	3.049	.010*
	간호	3.13±10.58				2.26±5.14		
	가정	3.07±12.50				2.04±5.77		
	공업	3.07±13.61				2.31±6.41		
	인문	3.14±11.89				2.50±5.23		
	예.체능	3.15±12.34				2.35±6.01		
학년	1학년	3.11±12.40		1.430	.233	2.25±5.75	1.825	.142
	2학년	3.09±13.14				2.34±6.07		
	3학년	3.01±5.49				2.43±4.68		
	4학년	3.19±10.86				2.39±5.50		
성별	남자	3.08±14.47		2.387	.123	2.32±5.94	3.021	.083
	여자	3.11±9.81				2.25±5.62		
연령	19-21세	3.11±12.43		.388	.679	2.28±5.83	.257	.774
	22-24세	3.09±11.55				2.31±5.63		
	25세 이상	3.09±13.06				2.27±5.92		
종교	기독교	3.11±11.60		.860	.488	2.31±5.79	.441	.779
	카톨릭	3.12±15.69				2.27±4.93		
	불교	3.09±10.86				2.27±5.51		
	기타	3.22±17.10				2.14±5.53		
	없음	3.09±12.71				2.28±6.11		
한달 용돈	만원 미만	3.14±10.23		.146	.965	2.27±4.21	.272	.896
	1-5 만원	3.11±8.65				2.26±5.92		
	5-10 만원	3.10±14.20				2.25±5.63		
	10-20 만원	3.10±12.84				2.29±5.92		
	20 만원 이상	3.11±11.25				2.31±5.8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3.13±12.79		.516	.597	2.18±5.97	6.167	.002*
	불만족	3.09±15.17				2.41±5.92		
	보통	3.10±11.08				2.27±5.60		
건강 상태	매우 좋다	3.11±15.12		.354	.841	2.19±6.59	1.645	.162
	좋다	3.10±10.88				2.33±5.44		
	보통이다	3.11±11.30				2.28±5.29		
	나쁘다	3.07±13.96				2.33±7.05		
	매우 나쁘다	3.08±20.84				2.10±5.31		
자신의 체형	말랐다	3.08±11.65		.646	.525	2.45±6.52	8.092	.000*
	보통이다	3.11±12.27				2.24±5.49		
	뚱뚱하다	3.10±13.66				2.24±5.79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다	3.10±14.53		2.355	.053	2.13±6.51	3.728	.005*
	좋다	3.10±9.58				2.31±5.46		
	보통이다	3.09±13.92				2.37±5.59		
	나쁘다	3.29±19.78				2.33±4.82		
	매우 나쁘다	2.70±54.77				2.33±5.79		

p<0.05

평균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학교생활의 만족도, 체형, 부모의 관계 정도에 따라 약물을 사용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약물 사용 실태와 지식 및 태도

약물사용 실태에 따른 약물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약물구입, 약물 복용, 약물지식 및 정보, 가족 중 장기복용자, 부모님의 태도 항목에 따른 약물 지식 점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복용조절(F=4.304, p<.014)

<표 2> 약물 사용 실태와 지식 및 태도

(N=490)

항목	세부항목	지식			태도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평균±표준편차	F	유의도
약물구입	약명을 말하고	3.15±17.68	1.119	.341	2.39±6.79	.789	.501
	증상을 말하고	3.10±10.65			2.30±5.68		
	의사처방	3.07±13.27			2.21±5.60		
	주위사람의 권유	3.05±30.37			2.37±6.40		
약물복용	증상이 나타나려고 할 때	3.14±13.79	1.621	.184	2.19±4.91	4.521	.004*
	증상이 나타났을 때	3.07±11.92			2.23±5.91		
	증상을 견디기 어려울 때	3.12±11.87			2.36±5.81		
	기타	3.08±16.20			2.51±5.72		
복용 조절	있었다	3.10±12.21	4.304	.014*	2.26±5.90	1.702	.183
	없었다	3.06±11.38			2.36±5.38		
	모르겠다	3.20±14.10			2.15±5.74		
약물 지식 및 정보	약사	3.09±8.64	1.551	.137	2.30±5.63	.185	.993
	의사	3.07±14.31			2.25±5.59		
	TV,라디오 광고	3.14±13.17			2.27±6.03		
	전문서적	3.14±16.35			2.30±5.62		
	신문, 잡지책	3.07±9.80			2.30±5.85		
	부모님으로부터	2.98±12.30			2.33±6.66		
	친구로부터	3.19±31.72			2.35±5.31		
	양호선생님, 학교선생님	3.04±8.98			2.18±5.18		
	기타	3.17±10.18			2.30±5.98		
가족중 장기 복용자	없다	3.08±11.47	1.021	.404	2.31±6.79	.557	.733
	부모님	3.13±12.90			2.26±5.43		
	조부모님	3.12±14.12			2.25±5.60		
	언니	3.05±12.18			2.25±7.36		
	오빠	3.12±18.42			2.43±4.83		
	동생	0			0		
부모님 태도	기타	3.19±10.75	.475	.700	2.38±5.68	.888	.447
	집에서 기다린다	3.09±19.50			2.41±4.76		
	약국에 간다	3.12±11.55			2.29±5.78		
	병원에 간다	3.09±12.47			2.26±5.94		
	기타	3.09±10.79			2.36±5.25		

p<0.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약물 복용시 복용을 조절한 적이 “있었다(3.10)”고 응답한 학생이 “없었다(3.06)”고 한 학생들 보다 약물 지식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즉, 몸이 불편할 때 복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약물사용 실태에 따른 약물에 대한 태도 점수에서는 약물복용 항목에서(F=4.521, p<.004)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증상을 견디기 어려울 때(2.36)”가 가장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견디기 힘든 증상을 경험

할 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었다.

2. 약물지식과 태도에 대한 문항별 분석

1) 약물 지식에 대한 문항별 분석

약물 지식은 일반적 사용 수칙과 보관법, 부작용, 임신 중의 약물 복용, 항생제, 비타민제, 중독성 약물의 유해성과 종류 등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물지식에 대한 문항별 평균 점수 관계를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표 3> 약물 지식 문항별 분석

세 부 항 목	평균	표준편차
1. 증상이 비슷하면 약은 서로 같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2.70	1.08
2. 어린이 약은 어른 약의 반만 먹이면 된다.	2.63	1.01
3. 증상이 심할때 2회분을 한꺼번에 먹으면 빨리 낫는다.	2.01	.90
4. 같은 증상이면 이전에 지어 놓은 약을 먹어도 된다.	2.89	1.08
5. 침으로 약을 삼키면 약의 농도가 진해져서 효과가 더 좋다.	2.45	.76
6. 약은 콜라나 쥬스등으로 먹어도 괜찮다.	2.22	.93
7. 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위벽이 보호된다.	2.43	.95
8. 녹여 먹는 약이라도 물과 같이 삼키면 위속에서 녹는다.	2.95	.91
9. 시럽약(물약)을 먹고 나서 물을 먹는다.	2.89	1.04
10. 약은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3.50	.90
11. 대부분의 약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다.	3.71	.82
12. 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50	.87
13. 무슨약이든지 부작용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	3.09	.96
14. 약의 부작용을 약물 과민증 이라고도 한다.	2.91	.81
15. 위장약 먹고 난후의 갈증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2.78	.74
16. 같은 약의 부작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난다	2.19	.81
17. 항생제(마이신)는 균에 의한 감염시에 사용된다.	3.18	.90
18. 병균에 맞지않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균에 약의 내성이 생긴다.	3.11	.83
19. 이노제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2.54	.91
20. 임신 중에 균의 침입이 있으면 항생제를 빨리 먹어서 (중략)..	2.16	1.00
21. 임신중 약물복용은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다.	3.76	1.09
22. 임신초기에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	2.59	.95
23. 임신 중에 감기에 걸리면 (중략) 빨리 약을 먹어야 한다.	1.94	.89
24. 허약한 사람은 음식물보다 영양제를 복용이 효과가 더 좋다.	2.18	.90
25.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2.41	.98
26. 어떤약물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중독된다.	3.76	1.01
27. 마약은 신체, 정신을 중독시켜 폐인을 만든다	4.13	.99
28. 마약은 알레르기를 치료하여 준다.	2.53	1.11
29. 마약은 기억력을 손상시킨다.	3.29	1.11
30. 마약은 잠을 방지하여 준다.	3.07	.98
31. 히로뽕에 중독되면 환각, 환청, 피해망상 등이 생긴다.	3.67	.96
32. 히로뽕에 대한 해독제는 있다.	2.87	.95
33. 마약주사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3.45	.94
34. 마약주사로 인하여 간염에 걸릴 수 있다.	3.55	.84
35.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3.61	1.05
36. 수면제는 불면증을 치료해 준다.	2.68	1.03
37. 감기약은 습관성 약물이다.	3.35	.96
38. 본드는 중독성이 있다.	3.94	.79
39. 히로뽕은 중독성이 있다.	3.95	.81
40. 이노제는 습관성 약물이다	3.35	.88
41. 변비약은 습관성 약물이다.	3.45	.93
42. 진통제는 습관성 약물이다.	3.69	.90
43. 대마초는 중독성이다.	3.90	.86
44. 타이핑은 습관성 약물이다.	3.53	.84
45. 알콜은 중독성이 있다.	3.86	.81
46. 드링크(박카스)는 습관성이 있다.	3.71	.82
47. 신경안정제는 중독성이 있다.	3.67	.83

<표 4> 약물 태도에 대한 문항별 분석

세 부 항 목	평균	표준편차
1. 약에 성분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먹어야 한다.	1.61	.95
2. 약물 사용시 방법, 용량을 잘 지켜서 먹어야 한다.	1.48	.78
3.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는 약을 먹어야 한다	1.80	.95
4. 약 구입시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44	1.08
5. 약을 살 때 증상을 중요시 여긴다.	1.65	.89
6. 약 복용시 부작용에 대해 염려한다.	2.46	1.11
7. 병에 걸렸을 때 꼭 약을 먹어야 한다.	3.10	1.15
8. 약은 곧 독이라고 생각한다.	3.48	1.17
9.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을 보면 신고해야한다.	2.00	1.02
10. 마약 복용자는 수용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	2.03	1.11
11. 흡연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른에게 말씀드려야 한다.	3.34	1.26
12. 약물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1.95	1.04

마약은 신체, 정신을 중독시켜 폐인을 만든다 문항의 평균점수(4.13)가 가장 높았고, 임신 중에 갖기에 걸리면 태아에게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빨리 약을 먹어야 한다 문항의 평균점수(1.94)로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마약의 유해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임신 중에 투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히로뽕은 중독성이 있다(3.95), 본드는 중독성이 있다(3.94), 대마초는 중독성이다(3.90) 문항의 평균점수가 모두 3.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중독성 약물의 유해성에 대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히로뽕에 중독 되면 환각, 환청, 피해망상 등이 생긴다(3.67), 마약을 복용하다 멈추면 금단증상이 나타난다(3.61), 마약주사로 인하여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3.45), 마약은 기억력을 손상시킨다(3.29), 마약은 잠을 방지하여 준다(3.07) 문항들은 평균 3.00 이상으로 대학생들의 약물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비교적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중독성 약물 종류에 대한 지식의 평균점수가 높아서, 신체, 정신을 중독시켜 폐인을 만든다는 중독성 약물에 대하여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식은 약물 중독 및 마약과 관련한 대중 매체와 홍보 효과 및 중·고등학교 때 보건교육을 통하여 학습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약물 지식

으로는 약물은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3.50), 시럽약을 먹고 나서 목약을 먹는다(2.89), 같은 증상이면 이전에 지어 놓은 약을 먹어도 된다(2.89)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대학생들이 중독성 약물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약물복용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한 지식은 낮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약물보관방법, 사용법, 복용방법 등에 관련한 약물 교육의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독성 약물의 유해성과 종류에 대한 문항에서 변비약은 습관성 약물이 다(3.45), 진통제는 습관성 약물이 다(3.69), 드링크(박카스)는 습관성이 있다(3.71), 신경안정제는 중독성이 있다(3.67)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해 보는 약물에 관련된 지식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약물 태도에 대한 문항별 분석

약물 태도는 약물 사용 시의 태도, 약물 광고와 주변의 흡연 및 마약 사용에 대한 태도 등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물태도에 대한 문항별 평균 점수 관계를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약은 곧 독이라고 생각한다(3.48)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어, 대학생들이 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약물에 대한 실태에서 증상

이 건디기 어려울 때 약물 복용을 가장 많이 한다<표 5 참조>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이 약을 독이라는 부정적인 태도로 인식하여 필요한 시기보다는 건디기 힘든 시기까지 도달했을 때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약물 복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약물 사용 시 방법·용량을 잘 지켜서 먹어야 한다(1.48)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어, 약의 성분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먹어야 한다(1.61), 약을 살 때 증상을 중언시 여긴

다(1.65),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는 약을 먹어야 한다(1.80), 약물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1.95) 문항들도 약물 태도의 평균점수가 2점 이하로 약물에 대해 신중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학생들이 약을 먹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또한 약물 사용시 방법과 용량도 잘 지켜서 먹지 않으며, 약물 사용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약물 사용 실태

(N=490)

항 목	세부항목	빈도(%)	남자(N=241)	여자(N=249)
약물구입은	약명을 말하고	48(9.8)	22(9.1)	26(10.4)
	증상을 말하고	360(73.5)	173(71.8)	187(75.1)
	의사처방	75(15.3)	41(17.0)	34(13.7)
	주위사람의 권유	7(1.4)	5(2.1)	2(0.8)
약물복용은	증상이 나타나려고 할 때	71(14.5)	34(14.1)	37(14.1)
	증상이 나타났을 때	194(39.6)	96(39.8)	98(39.4)
	증상을 건디기 어려울 때	211(43.1)	101(41.9)	110(44.2)
	기타	14(2.9)	10(4.1)	4(1.6)
복용 조절한 적은	있었다	345(70.4)	164(68.0)	181(72.7)
	없었다	95(19.4)	53(22.0)	42(16.9)
	모르겠다	50(10.2)	24(10.0)	26(10.4)
약물 지식 및 정보	약사	164(33.5)	75(31.1)	89(35.7)
	의사	71(14.5)	37(15.4)	34(13.7)
	TV,라디오 광고	162(33.1)	72(29.9)	90(36.1)
	전문서적	14(2.9)	9(3.7)	5(2.0)
	신문, 잡지책	16(3.3)	12(5.0)	4(1.6)
	부모님으로부터	25(5.1)	16(6.6)	9(3.6)
	친구로부터	8(1.6)	4(1.7)	4(1.6)
	양호선생님, 학교선생님	7(1.4)	1(0.4)	6(2.4)
	기타	23(4.7)	15(6.2)	8(3.2)
가족중 장기 복용자	없다	243(49.6)	130(53.9)	113(45.4)
	부모님	183(37.3)	82(34.0)	101(40.6)
	조부모님	38(7.8)	15(6.2)	23(9.2)
	언니	15(3.1)	8(3.3)	7(2.8)
	오빠	6(1.2)	6(2.5)	0
	동생	0	0	0
	기타	5(1.0)	0	5(2.0)
병이 났을 때 부모님의 태도	집에서 기다린다	21(4.3)	12(5.0)	9(3.6)
	약국에 간다	243(47.8)	109(45.2)	125(50.2)
	병원에 간다	217(44.3)	111(46.1)	106(42.6)
	기타	18(3.7)	9(3.7)	9(3.6)

3. 약물 사용 실태

약물 사용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약물 구입 과정은 전체 대학생의 대부분인 73.5%가 “증상을 말하고” 구입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의사처방에 따라” 구입한다고 15.3%, “약명을 말하고” 구입한다고 9.8%로 응답하여 증상 위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권인숙(199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약물 복용 시기에서는 43.1%가 “견디기 어려울 때” 구입한다고 응답하였고, 39.6%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로 응답하여 증상이 발생한 뒤 약물 복용함을 알 수 있었던 반면, 14.5%는 “증상이 나타나려고 할 때”로 응답하여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약물에 효능보다 심리적 의존에 따르는 것으로 사려된다. 약물 복용 시 조절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70.4%가 “있었다”로 응답하였고, 19.4%가 “없었다”, 10.2%가 “없었다”로 응답하여 약물 복용 시 29.6%가 약물 복용에 대한 조절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연아(1987), 이명숙(1989), 권인숙(1991)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약물 사용상에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규적인 약물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약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곳에 대한 질문에서 약사(33.5%)가 가장 많았으며, TV, 라디오 광고를 통해(33.1%), 의사(14.5%), 부모님(5.1%)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이명숙(1989)의 결과에서는 마스크(47.8%), 약사(35.8%), 부모님(6.0%)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가족 중 장기복용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49.6%가 “없다”로 가장 많았으며, 37.3%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하여, 선행 연구(권인숙, 1991; 최연아, 198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보인다. 가족 중 병이 났을 때 부모님의 태도에는 47.8%가 “약국에 간다”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4.3%가 “병원에 간다”, 4.3%가 “집에서 기다린다”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양상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후 의약분업이 새롭게 시도되는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대 다수의 사람들이 질병 발생 시 약국을 병원처럼 의존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었으며, 이는 과거 시행되었던 유사 연구(권인숙, 1991; 최연아, 1987) 결과와 비슷하여, 질병 발생 시 약국을 병원과 동등하게 선호함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계열, 학년, 연령, 종교, 용돈, 학교 생활 만족도, 건강 상태, 자신의 체형, 부모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표 6참조>. 계열은 보건 계열이 34.5%, 공업 계열 28.0%, 간호 계열 14.5%, 예.체능 계열 11.6%이었으며, 학년으로는 1학년이 69.2%이, 연령으로는 19-21세가 52.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종교로는 기독교가 39.4%이며, 종교가 없다는 학생도 35.5%이었고, 용돈은 10-20 만원이상이 70%이었으며, 학교 만족도로는 78.8%이상이 보통이상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건강 상태에서는 47.6%가 좋다고 하였으나 14.0%에서 나쁘다고 하였고, 자신의 체형에서는 말랐다가 22.2%, 뚱뚱하다가 14.5%이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70%의 학생들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대학생을 비교해 볼 때, 일반적 특성들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종교에서 남학생의 경우 38.6%가 없다고 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44.2%가 기독교이었고, 체형에서 말랐다는 남학생은 29.5%가 여학생은 15.3%이 응답하였으나, 뚱뚱하다는 경우 남학생은 11.6%, 여학생은 17.3%로 대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체형에 대해 더욱 민감함을 알 수 있었으며, 계열에서는 남학생의 44.0%가 공업계열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보건

<표 6>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490)

항 목	세부항목	빈도(%)	남자	여자
			241(49.2)	249(50.8)
계 열	보건	169(34.5)	78(32.4)	91(36.5)
	간호	71(14.5)	0	71(28.5)
	가정	25(5.1)	8(3.3)	17(6.8)
	공업	137(28.0)	106(44.0)	31(14.0)
	인문	31(6.3)	21(8.7)	10(4.0)
	예.체능	57(11.6)	28(11.6)	29(11.6)
학 년	1학년	339(69.2)	142(58.9)	197(79.1)
	2학년	120(24.5)	84(34.9)	36(14.5)
	3학년	25(5.1)	11(4.6)	14(5.6)
	4학년	6(1.2)	4(1.7)	2(.8)
연 령	19-21세	257(52.4)	92(38.2)	165(66.3)
	22-24세	124(25.3)	66(27.4)	58(23.3)
	25세 이상	109(22.2)	83(34.4)	26(10.4)
종 교	기독교	193(39.4)	83(34.4)	110(44.2)
	카톨릭	33(6.7)	16(6.6)	17(6.8)
	불교	78(15.9)	40(16.6)	38(15.3)
	기타	12(2.4)	9(3.7)	3(1.2)
	없음	174(35.5)	93(38.6)	81(32.5)
한달 용돈	만원 미만	10(2.0)	6(2.5)	4(1.6)
	1-5 만원	42(8.6)	25(10.4)	17(6.8)
	5-10 만원	95(19.4)	36(14.9)	59(23.7)
	10-20 만원	217(44.3)	95(39.4)	122(49.0)
	20 만원 이상	126(25.7)	79(32.8)	47(18.9)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87(17.8)	48(19.9)	39(15.7)
	불만족	104(21.2)	62(25.7)	42(16.9)
	보통	299(61.0)	131(54.4)	168(67.5)
건강 상태	매우 좋다	72(14.7)	49(20.3)	23(9.2)
	좋다	161(32.9)	79(32.8)	82(32.9)
	보통이다	188(38.4)	74(30.7)	114(45.8)
	나쁘다	59(12.0)	32(13.3)	27(10.8)
	매우 나쁘다	10(2.0)	7(2.9)	3(1.2)
자신의 체형	말랐다	109(22.2)	71(29.5)	38(15.3)
	보통이다	310(63.3)	142(58.9)	168(67.5)
	뚱뚱하다	71(14.5)	28(11.6)	43(17.3)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다	110(22.4)	61(25.3)	49(19.7)
	좋다	248(50.6)	102(42.3)	146(58.6)
	보통이다	118(24.1)	70(29.0)	48(19.3)
	나쁘다	12(2.7)	8(3.3)	5(2.0)
	매우 나쁘다	1(0.2)	0	1(0.4)

계열이 36.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학년의 경우 남녀 대학생 모두 응답자 중 69.2%가 1학년이었으며, 연령에서 남학생의 경우 24세

이상이 34.4%이고 여학생의 경우 19-21세가 66.3%로 많았으며, 남녀 대학생의 한달 용돈은 모두 10-20만원 대가 가장 많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약물 사용 시 지식 및 태도를 보는 기초조사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소재한 일부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99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에게 배부된 600부 중 539부를 회수하여 내용 누락을 제외한 총 490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7.0)으로 전산처리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약물에 대한 실태는 실수와 백분율로 보았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지식 및 태도는 ANOVA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과 약물 지식과의 관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약물 태도와의 관계는 계열($F=3.049$, $p<.010$), 학교 생활 만족도($F=6.167$, $p<.002$), 자신의 체형($F=8.092$, $p<.000$), 부모와의 관계($F=3.728$, $p<.005$)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약물사용의 실태에 따른 약물 지식과의 관계는 복용조절 항목($F=4.304$, $p<.014$)이, 약물 태도와의 관계는 약물복용 항목($F=4.521$, $p<.004$)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약물 지식에 대한 문항의 평균점수 중 마약은 신체정신을 중독시켜 폐인을 만든다($M=4.14$)가 가장 높았고 임신 중에 갖기에 걸리면 태아에게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빨리 약을 먹어야 한다($M=1.94$)가 가장 낮았다.
4. 약물 태도에 대한 문항의 평균점수 중 약은 곧 독이라고 생각한다($M=3.48$)가 가장 높았고, 약물 사용 시 방법·용량을 잘 지켜서 먹어야 한다($M=1.48$)가 가장 낮았다.
5. 약물 사용에 대한 실태에서는 대학생들은 약을 구입할 때 증상을 말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360(7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

물복용은 증상을 건디기 어려울 때 211(43.1%)명으로 대학생들은 증상을 건디기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복용을 조절한 적이 345(7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약물 지식 및 정보는 약사에 의한 경우가 164(33.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TV,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162(33.1%)명이 얻고 있었다. 가족 중 장기 약물 복용자는 243(49.6%)명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183(37.3%)명이 부모님이 약물을 장기복용하고 있었다. 병이 났을 때 부모님의 태도를 보면 약국에 간다가 243(47.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에 간다가 217(44.3%)명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보건교육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약사와 TV를 통한 약물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사려된다. 마약의 유해성과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으나 일반적 약물의 복용법과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지식과 태도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도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체계적인 건강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을 넓혀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지식 및 실태 조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제한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면접 및 관찰을 이용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약물 사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건강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추후조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귀분, 이경호 (2000). 청소년의 약물남용경
험. 대한간호학회지, 30(4), 917-931.

강신영 (1998). 중학생의 약물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익배 (1987). 약학개론. 도서출판 사론.

권인숙 (1991). 보건교육 방법별 접근이 여고
생의 약물 사용 지식 및 태도 변화에 미치
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희 (1988). 한국 청소년의 약물 남용과 비
행행위. 한국 인구학회지, 11(2), 54-62.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 (1993). 청
소년들의 약물남용실태에 대한 연구. 간호
학회지, 23(3), 487-503.

김혜균 (1998). 청소년 약물사용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성길 (1998). 약물남용 -원인, 증상 및 치료
-. 중앙문화사, 1-11.

박충선, 은종영, 정미영 (1999). 청소년 약물
남용의 의식실태 및 예방 전략에 대한 연
구. 대한간호학회지, 29(1), 127-138.

백명기, 민병근 (1981). 비행 청소년의 약물사
용 빈도 및 약물사용 양상에 관한 사회정신
의학적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2),
234-247.

변상호, 이태복, 이년수 (1978). 청소년의 습
관성 약물등의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연보, 13 : 32-36.

유방현 (1981). 항생제 남용, 오용에 따른 부
작용 특히 간상해에 대하여. 대한의학협회
지, 24(3).

정희숙 (1991).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실태에
대한 문헌적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숙 (1989). 전문대 학생의 약물 사용에 관
한 연구. 중앙의학, 54(9), 687-696.

최연아 (1987).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
사용실태 조사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Chinlund, S (1974). Juvenile Offenders
and the Drug Problem in Problems of
Adolescents Ed. by Hardy, R.e. and
Cull, J.G., Illinois, Thomas.

Shearn, C. R. and Fitzgibbons (1972).
Patterns of Drug use in a Population
of Youthful Psychiatric Patterns.
Am. J. Psychiatry, 128 : 1381-1387.

-Abstract-

key concept : Drug use status, Knowledge
and attitude

The Survey on the Drug use
status, Knowledge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Seoul and Northern Part of the
Kyunggi-do)

*Han, Kyoung Soon**
*Moon, Sun Young***
*Park, Hyun Ok*** · Park, Eun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status of drug uses in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nd
attitude when they use it. W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Sep. 1 to Oct.
30 in 1999.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Shin-
heung College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Shin-
heung College

*** Instructor, Dept of Nursing, Shin-heung
College

**** Instructor, Dep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The subjects were 490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northern of the Kyunggi-do. Th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version 7.0) and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no correlation for all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knowledge for drugs. On the contrary, in the relati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 for drug of subjects, some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g., department (F=3.049, $p<.010$), satisfaction for school life (F=6.167, $p<.002$), body shape (F=8.092, $p<.000$), and the relationship with ones parents (F=3.728, $p<.005$).
2. In the analysis of drug use status and knowledge, only in the factor of administration contro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4.304, $p<.014$) and in the relation of attitude for drug uses, drug administr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4.521, $p<.004$).
3. In the mean scores for the drug knowledge analysis, the highest factor was "A narcotic make deformed persons through poisoning of physical and mental" (M=4.14), the lowest factor was "If catch the flu during the pregnancy, should be take drug as possible as quickly to reduce negative effect for fetal" (M=1.94).
4. In the analysis for drug attitude, the highest factor was "A drug is alike a poison" (M=3.48), "Should be keep the usage and dosage of drug" was the lowest (M=1.48).

5. From the investigation for status of drug use, it was revealed that the most subjects (73.6%) were purchase drugs after explain their symptoms to pharmacist. And they take drugs only when they felt painful in 43.1%. The most students (70.4%) were experienced control of drug administration. It was inquired that subjects were mainly obtained information about drugs from pharmacist and television (or radio) advertisement, 33.5% and 33.1%, respectively. In the examination for existence of long-term administrators in their family, 'none' and 'only parents' are 49.6% and 37.3%, respectively. When their parents have illness, the persons go to drugstore and hospital for health-care, 47.8% and 44.3%,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as follows.

1. This study was analyzed data from questionnaires for college students in a part of local areas, so we suggest that the next research should be perform for national-wide students as subjects to generalize the results.
2. It is need more intensive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interview and observation.
3. Additional research is required for knowledge and behaviors of drug uses that will how impact on ones health behavior.